

서틀콕 ‘안세영 시대’ 열렸다



한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이 19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2023 전영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천위페이를 2-1(21-17 10-21 21-19)로 꺾고 우승한 뒤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세영, 배드민턴 세계 최고 권위 2023 전영오픈 단식 우승
나주 중앙초→광주 풍암초→광주체육중→광주체육고 출신
탄탄한 수비·절묘한 결정력 강점 ... “올림픽 금메달이 목표”

광주체육고 출신 안세영이 배드민턴의 워블던으로 불리는 2023 전영오픈에서 우승했다.

전영오픈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 투어 슈퍼 1000 대회로, 1899년에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배드민턴대회다.

안세영은 19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천위페이를 2-1(21-17 10-21 21-19)로 꺾었다.

전영오픈 여자 단식 우승은 1996년 방수현 이후 27년 만이다. 전체 종목에선 2017년 여자복식 장애나-이소희 이후 6년 만에 나온 금메달이다.

2020년 첫 출전 당시 32강에서 탈락하고 지난해 준우승에 그쳤던 안세영은 자신의 첫 전영오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상대가 천위페이였다든 점도 뜻깊다. 천위페이는 안세영과 맞대결에서 8승 2패로 강한 모습을 보여 ‘천적’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 1월 말레이시아오픈 준결승에 이어 전영오픈 결승까지 두 번 연속으로 천위페이를 격

파하며 제 손으로 천적 꼬리표를 떼겠다는 기세다.

안세영은 탄탄한 수비력과 절묘한 결정력을 무기로 기선제압을 했다.

그는 올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지난 1월 말레이시아오픈과 인도오픈,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3월 독일오픈과 전영오픈 등 올해 5차례 월드투어에 출전해 모두 결승전에 올랐고, 인도오픈과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전영오픈에서 정상에 올랐다.

나주시 이창동이 고향인 안세영은 아버지(안정현 나주체육고 사무국장)를 따라갔던 배드민턴 동호인 클럽에서 라켓을 잡았다.

아버지는 배드민턴에 소질을 보이자 나주 중앙초고 1학년 때 광주 풍암초로 전학시켰다. 배드민턴 스타 이웅대의 스승인 최영호 감독에게 본격적으로 배드민턴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2017년 광주체육고 3학년 때 선발전을 통과해 2018년부터 성인 대표팀에서 뛰었다.

2018년 3월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341위를 기록했던 안세영은 이듬해 랭킹 99위로 뛰어올랐다. 2020년 1월에는 다시 90단계로 건너 뛰고 랭킹 9위에 올랐다.

안세영은 제6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경기부문 여자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세영은 광주체육고를 졸업한 뒤 학업을 접고 실업팀 삼성생명체임입단했다.

안정현씨는 “딸의 목표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정상에 서는 것”이라면서 “(세영이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한 때 고민했으나 꿈을 위해서는 운동에 전념하려고 실업팀으로 입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영이는)아간 훈련이 일상인 연습벌레인데 그동안 각종 인터뷰나 행사 등에 참석하면서 운동량이 부족해 격정을 많이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태극전사 맞대결이 성사된 여자복식 결승에선 김소영-공희용 조와 백하나-이소희 조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눠 가졌다.

5년 차 듀오인 김소영-공희용은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가며 반년 차의 백하나-이소희를 2-0(21-5 21-12)으로 제압했다.

혼합복식 서승재-채유정 조는 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 정승웨-이황아총 조(중국)와 접전 끝에 1-2(16-21 21-16 12-21)로 석패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앤더슨 “매일 피칭 노트 작성”

LG와 시범경기 5.1이닝 1실점...직구 위주 힘으로 승부



KIA 타이거즈 새 외국인 선수 앤더슨이 시범경기 두 번째 등판에 나서 이닝을 끌어올렸다.

앤더슨은 2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지난 15일 키움전에 이어 두 번째 등판을 소화했다.

키움전에서 60개의 공으로 3.2이닝을 소화했던 앤더슨은 이날 67개 공으로 5.1이닝을 1실점으로 막으면서 효율적인 투구를 선보였다.

1회 시작은 직선타였다. 박해민의 타구가 1루수 변우혁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갔다. 문성주와의 승부에서는 변우혁이 공을 잡아 직접 1루 베이스를 찍었다. 오스틴은 유격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8개의 공으로 1회를 끝냈다.

빠르게 1회 수비를 끝낸 뒤 KIA가 바로 점수를 뽑아냈다.

1회말 류지혁의 몸에 맞는 볼에 이어 고종욱이 우중간을 가르면서 무사 2-3루. 최형우가 포수 땅볼로 물러났지만 소크라테스의 2루 땅볼 때 3루에 있던 류지혁이 홈에 들어왔다. 전날 홈런 포함 밀티히트 2타점 활약을 했던 변우혁은 좌전 적시타를 날리며 좋은 감을 이어갔다.

2-0으로 앞선 2회 앤더슨이 선두타자 오지환과의 승부에서 직접 베이스 커백에 들어가 아웃카운트를 만들었다. 하지만 문보경을 볼넷으로 내보냈고, 박동원에게 중전안타를 맞으면서 1회 1사 1-3루가 됐다. 폭투가 나오면서 앤더슨이 실점을 기록했다.

이어진 1사 2루, 앤더슨이 서건창과 김민성을 각각 2루수 땅볼과 유격수 플라이로 처리해 추가 실점을 없었다.

앤더슨이 3회 선두타자 홍창기를 몸에 맞는 볼로 내보냈지만 세 타자를 범타로 돌려세웠다. 4회에도 2사에서 박동원에게 우전안타는 맞았지만 서건창을 유격수 플라이로 잡고 이닝을 끝냈다.

선두타자 김민성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은 5회 초, 홍창기에게 중전안타를 맞은 뒤 도루까지 허

용했다. 그러나 앤더슨은 박해민과 문성주를 외야 플라이로 돌려세웠다.

6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앤더슨은 오스틴을 우익수 플라이로 잡고 아웃카운트를 더했다. 이어 오지환에게 볼넷을 내주면서 앤더슨의 등판이 마무리됐다. 5.1이닝 3피안타 3사자구 1탈삼진 1실점.

앤더슨은 67개의 공 중 44개를 스트라이크 존에 꽂아넣었고 43개의 직구를 던지며 힘으로 승부했다. 최고 구속은 151km, 평균 구속은 146km였다. 슬라이더(9개·134-139km), 커브(7개·119-129km), 체인지업(6개·132-139km), 투심(2개·146-147km)도 구사했다.

KIA는 앤더슨에 이어 이준영, 김기훈, 김대우, 최지민 등 ‘좌완’으로만 볼넷을 운영하며 남은 이닝을 무실점으로 처리했다.

KIA는 8회 1점을 보태며 3-1 승리를 거뒀다.

류지혁이 좌전안타로 출루한 뒤 부상에서 돌아온 박찬호가 대주자로 투입됐다. 폭투로 2루로 향한 박찬호가 고종욱의 2루 땅볼 때 3루로 이동한 뒤 김호령의 중전안타 때 홈에 들어오면서 KIA의 세 번째 득점을 만들었다.

시범경기 반환점을 돈 KIA는 이날 승리로 4승 1무 2패를 기록했다.

앤더슨은 “직구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전반적으로 원하는 대로 제구가 잘 됐고, 유리한 카운트에서 결정구로 직구를 던져 아웃카운트를 잡아만 족스럽다”며 “시범경기 동안 잘 던지지 않는 구종을 체크하다 보니 카운트가 몰려 볼넷 허용이 있었지만 체크를 하는 과정이라 괜찮다고 생각한다. 현재 몸 상태가 매우 좋다”고 밝혔다.

또 “매 경기 느낀 점을 노트에 적고 있는데, 오늘은 직구 공략이 원하는 대로 잘 됐던 것, 밸런스 좋았던 것, 이닝과 이닝 사이에 리커버리가 잘 됐던 점을 적으려고 한다”며 “다음 등판에서 투구수를 더 늘리고 몸 상태를 잘 유지해서 정규 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엄지성, 태극마크 달고 뛰다

도하컵 U-22 친선대회 참가
“대표팀에 도움 되는 역할 할 것”

광주FC의 ‘에이스’ 엄지성이 기분 좋게 한국 대표로 달린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올림픽 대표팀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도하컵 U-22 친선대회 참가를 위해 카타르 도하로 떠났다. 도하로 가는 비행기에는 엄지성과 허을 그리고 김포FC에 임대 중인 조성권까지 세 명의 광주 유스 출신 선수가 탑승했다.

광주의 미래로 꼽히는 선수들 중에서 특히 엄지성에 시선이 쏠린다. 엄지성은 광주는 물론 한국 축구를 이끌어 갈 기대주다. 대표팀 합류에 앞서 치른 경기에서 2023시즌 마수걸이 골까지 기록한 만큼 이번 소집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K리그1으로 돌아온 을 시즌 엄지성은 초반부터 롤러코스터를 탔다.

엄지성은 2라운드 서울전에서 중원에서 공을 몰고 올라가 골망을 흔드는데 성공했다. 골 세리머니까지 펼쳤지만 앞서있던 산드로의 파울로 ‘무효골’이 선언됐다. 설상가상 엄지성은 이날 후반 연달아 경고 카드를 받아 퇴장했다. 수적 열세 속 뒷심 싸움에서 밀린 광주는 0-2패를 기록했다.

엄지성은 이날 퇴장으로 기다렸던 전북현대전에도 출전하지 못했다.

아쉬움을 감춰둔 엄지성은 4라운드 인천전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19분 ‘속죄골’을 터뜨렸다.

정호연의 슈팅이 골키퍼를 지나 골대 왼쪽에 있던 엄지성 앞으로 향했다. 공을 잡은 엄지성은 오른발로 공을 밀어 넣었다. 이번에는 비디오 판독을 할 것도 없는 완벽한 골이었다. 실패가 쌓여만 들어준 노력의 결실이기도 했다.

엄지성은 “당시 상황이 급하지 않았다. 자신 있었다. 몸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됐다’ 하면서 가볍게 툭 밀었다”며 “훈련할 때 1대1 상황 등에 대비해 오른쪽 연습을 많이 했다. 못 넣은 경험 많은데 그 경험을 토대로 훈련했기 때문에 골이 나올 수 있었다. 실패를 경험해서 성공을 한 것 같다”고 돌아봤다.

노력의 결실을 맺은 엄지성은 팀의 5-0 대승에 기여하면서 마음의 짐을 털어내고 기분 좋게 대표팀에 합류하게 됐다.

엄지성은 “서울전에서 퇴장당하고 한 경기를 쉬



엄지성

었는데 팀원들한테 너무 미안했다. 다행히 인천전 골로 미안한 마음을 조금 덜 수 있었다”며 “행들에게 감사하다. 내가 잘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신다. 감독님, 코치님들이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덕분에 좋은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됐다”고 대표팀 합류 소감을 밝혔다.

한국을 대표해서 뛰게 된 엄지성은 ‘도움이 되는 선수’로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엄지성은 “인천전을 통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자만하지 않고 훈련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며 “감독이 원하는 전술을 수행하면서 팀,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게 목표다. 슈팅이나 공격적인 부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보여드리고 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대니 리, LIV 골프 한국계 선수 첫 우승

연장서 그린 밖 약 7.5m 버디
상금 52억원 ‘돈벼락’

‘교포 선수’ 대니 리(뉴질랜드)가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 2023시즌 2차 대회(총상금 2500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대니 리는 20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마라나의 더갤러리 골프클럽(파71·746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2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9언더파 204타의 성적을 낸 대니 리는 루이 우스트하겐(남아공), 카를로스 오르티스(멕시코), 브렌던 스틸(미국)과 2차 연장까지 치러 개인전 우승 상금 400만 달러(약 52억원)의 주인공이 됐다.

다른 교포 선수들인 케빈 나, 김시환(미국) 등과 한 팀을 이룬 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한 대니 리는 이 대회 개인전 상금 400만 달러와 단체전 상금 12만5000 달러를 합해 한국 돈으로 약 54억원을 받았다.

1차 연장에서 약 1.5m 퍼트를 놓쳤던 대니 리

는 2차 연장에서는 그린 밖에서 약 7.5m 버디 퍼트를 떨구어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해 출범한 LIV 골프 개인전에서 교포 선수가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IV 골프에 한국 국적 선수는 아직 없다. 케빈 나, 김시환, 대니 리 등 교포 선수 3명이 속해 있다.

1990년 한국에서 태어나 이민명이라는 한국 이름이 있는 대니 리는 올해 초까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다가 2월 LIV 골프 2023시즌 개막전부터 LIV로 이적했다.

아마추어 시절 세계 랭킹 1위까지 오르고, 유럽 투어 조니워커 클래식에서 우승하는 등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으며 PGA 투어에서는 2015년 한 차례 정상에 오른 경력이 있다.

PGA 투어에서 통산 상금 1536만3106달러(약 200억원)를 벌였다.

2015년 7월 PGA 투어 그린브라이어 클래식 이후 7년 8개월 만에 우승한 대니 리는 “오랜만에 우승인데, 내가 아직도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LIV 2023시즌 3차 대회는 31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막한다. /연합뉴스



대니 리